

현장시선



방 해 성
제주지방조달청장

제주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매섭다. 그러나 발을 따라 길게 이어진 현무암 돌담은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다. 접착제 하나 없이 쌓아 올린 돌담이 쓰러지지 않는 것은 돌마다 송송 뚫린 바람구멍 때문이다. 제주에서 시멘트나 벽돌로 담을 쌓으면 강풍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만, 돌담은 돌 사이에 바람길이 있어 흔들릴지언정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돌담의 지혜는 제주 산업 현장에서도 발견된다. 지역 기업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도전과 혁신으로

제주 돌담은 제주 기업과 닮은 꼴

인공지능(AI)과 친환경 기술이라는 변화의 바람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단단한 생존력을 키우고 있다. 제주 산업이 1차 산업과 단순 서비스업 중심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건축물의 복잡한 설계 도면을 AI가 정밀 검토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 솔루션이 대신한다. 기업 정보 분석해 최적의 '유헤이션' 코스를 제안하고, 수명을 다 한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탄생시키는 등 제주의 산업이 혁신 기술을 만나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이 시장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면 든든한 디딤돌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조달청이다.

올해 제주지방조달청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최근에는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10개 기업을 초청

해 위치정보시스템, 스마트온실, 해상부유구조물 등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과 공공조달 진입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수요기관과 기업이 만나 기술 활용을 논의하는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역시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단순 제품 소개를 넘어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돌담의 바람구멍처럼 조달기업에게 새로운 숨구멍을 제공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강화,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 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혁신 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도 내 기업들이 도전할 무대 자체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 AX(AI Transformation)'는 정부가 먼저 AI 적용 제품·서비스를 구매해 초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흐름은 제주 기업이 기술력을 검증받고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

돌담이 틈새로 거친 바람을 이겨내듯, 내년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지방조달청도 새해에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현장소통과 간담회를 확대해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혁신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사설

제주 불법 관광영업 발본색원 나서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불법 관광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6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31건)보다 갑절 늘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면서 관광객 안전 미확보와 도내 업계 피해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단속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을 비롯 불법유상운송 43건과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관광진흥법과 여행자동차운수법 등을 위반한 행위들이다. 대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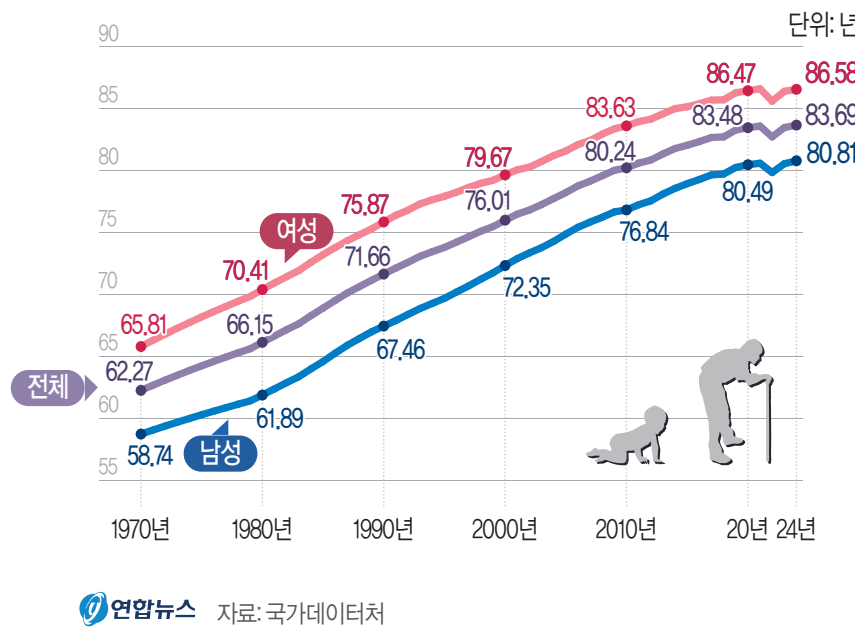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 로 이동시키며 1인당 2~3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내용이었다. 중국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이 불법영업의 배경이다.

불법영업은 개별 관광객 비중이 커지는데서 기인한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90.1%가 개별여행이었다. 중국관광객의 여행 방식은 90% 이상이 자유여행이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도내 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이 횡방을 놓고 있다. 문제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등 고질병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업계 피해를 차단함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될 노릇이다.

그래픽 뉴스

기대수명 추이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가정했을 때 해당 연도에 태어난 출생아(0세)의 기대수명



열린마당

초고령사회 문제, '제주가치돌봄'에 길을 묻다



고 수 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제주도민 네 명 중 한 분이 어르신인 시대가 됐다. 전통적인 가족 돌봄이 해체되고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래 사는 축복'이 '돌봄 공백의 부담'으로 바뀌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제주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다.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을 표방

하는 이 제도는 기존의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복지 서비스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의 일상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가치돌봄은 생활 돌봄, 주거 편의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의 모범 사례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물품이나 현금 지원이 아닌,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 장구를 통한 공무원의 방문 조사와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굳건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위기인 동시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가 모든 도민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치 있는 일상'을 지키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전국 롤 모델로

독립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1억 7000만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지상 1층, 6동 규모다. 기존의 집단형 공동거주시설과는 확연히 다르다. 각 입소자에게 맞춤형 개별 공간을 제공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설 정원은 30명이다. 입소 대상은 발달장애인이다. 입소자들은 1~2인실 침실을 사용하게 된다. 제주시는 내년 4월쯤부터 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운

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4월부터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각 장애인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 장애인 건강관리와 직업·사회활동 참여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신개념 공공형 거주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서는 것은 의미가 깊다. 제주시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토록 해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만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 고

이태종 아버지 벽진이공 기택 (향장·향년 97세)께서 서기 2025년 12월 3일 21시 38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5년 12월 5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5년 12월 6일(토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02호 분향실
- ▶장 지: 어음리 선영

아들 이태중 며느리 김순자
태섭 홍유경
태현 김혜숙
태경 이경숙
딸 이여춘 사위 안성순(故)
지원 김창길
선화 김성근
정윤 김용수
장손 이수용

※ 연락처: 이태종 010-4699-2265

부 고

현창현 어머니 인동장씨 정순(향년 96세)께서 서기 2025년 12월 4일 08시 14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5년 12월 5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5년 12월 6일(토요일) 오전 6시 4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 ▶장 지: 양지공원

아들 현창현 며느리 백우숙
현종현
현성현 강해옥
딸 신생 사위 김두식
길순 김성익
길자 강동현
길선 장원규

※ 연락처: 현창현 010-3699-2828
현길자 010-3693-1322
강동현 010-4690-171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 경삼(前 중등교장, 향년 8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저편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12월 5일

배우자 전영순
아들 현응욱 며느리 홍주진
 웅권 이정은
딸 현주희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오석환(1947. 8. 6. 생)
• 최후주소: 제주도 구좌읍 김녕로19길 16 (김녕리)
상기자는 2025년 3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5년 11월 26일 제주지방법원 2025년단480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의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 2. 신고처: 제주도 구좌읍 세화5길 6-1(세화리)

2025년 12월 5일

공고인(특별상속한정승인자)
이순옥 오철호 오철민 오철홍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4 포고제2호위반 등
- 피고인
망 정창림

위 피고인은 포고 제2호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12. 4.

판사 노 현 미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12 내란 등
- 피고인
망 김능환, 양원준, 이상수, 강창경, 김성오, 김세홍, 정원호, 강창균, 김의창, 양문오, 문지윤, 김규림, 김두호, 양시우, 홍옥녀(이명 홍옥례), 김희현, 최병호(이상 국방경비법 위반), 망 김병규, 김종인, 김화호, 백창순, 김남형, 문진욱, 손석규, 현인하, 김규현, 김현수, 고창률, 송두경, 양이운, 김구하, 양철호, 이완형, 김인하, 이태훈, 고지영, 강반삼, 강창언(이상 내란)

위 피고인들은 내란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12. 4.

판사 노 현 미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 리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았는 경우
-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트라이